

7/12/20

설교 제목: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8 장 1-33 절

(창 18:1) 여호와께서 마르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창 18: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창 18: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창 18: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창 18: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창 18: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창 18: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창 18:8) 아브라함이 영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창 18: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절관주** 창 24:67

(창 18: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창 18: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창 18: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 18: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창 18: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 18: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창 18: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창 18: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절판주** 시 25:14

(창 18: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18: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창 18: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 18: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창 18: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 18: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창 18: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창 18: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 18: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 (창 18: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 (창 18: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 (창 18: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 (창 18: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 (창 18: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 (창 18: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시어 특별 계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수종드는 두 천사들과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 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1-15)는 것과 죄악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16-33)는 당신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오정 즈음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서있는 나그네들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곧장 달려나가 정중하게 영접합니다.

(창 18: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창 18: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창 18: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창 18: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창 18: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서있는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들을 '내
주'라고 호칭하며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장막에 있던 사라에게 급히 떡을 만들라고 하고
자신은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하였습니다.

(창 18: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창 18: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창 18:8) 아브라함이 영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대접하며 식사 시종을 들었습니다.

식사 도중 나그네들 중 한 사람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 즈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 18: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창 18: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장막에 있던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창 18: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창 18: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있는터라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라의 생각을 읽으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창 18: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창 18: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웃은 사람은 사라 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는 이때까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는 이듬해 아들 이삭을 낳고 웃습니다.

(창 21: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 21: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창 21: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창 21: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창 21: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 21: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번 사라의 웃음은 일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오셔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셨을때 웃었던 그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웃음입니다.

그때의 웃음이 다소 냉소적인 웃음이었다면 지금의 웃음은 말씀의 성취로 인한 환희의 웃음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는 불신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현현하신 하나님 일행이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자 아브라함은 전송을 하기 위해 따라 나섰습니다.

(창 18: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전송하는 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당신의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말문을 여십니다.

(창 18: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 18: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나

(창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솔직하게 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역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은 형용할 수 없는 감격에 전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창 18: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창 18: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소돔으로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곁에 남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매달립니다.

(창 18: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창 18: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 18: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창 18: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니 소돔에 있을 의인을 보고 소돔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흔쾌히 응해 주십니다.

(창 18: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여섯 번이나 의인의 수를 낮추어 간청합니다.

(창 18: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창 18: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신다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의인 수를 열 명까지 내려 간청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라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가며 조심스럽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외로 아무런 말씀없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다 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특별 계시를 주시려고 특별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그분을 더 깊게 알게 되었고 그분에 대한 한층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계시해 주시고 일년 뒤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자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친구로 동역자로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멸망당했지만 오십 명, 사십오 명, 사십 명, 삼십 명, 이십 명, 열 명, 6 차례에 걸쳐 의인의 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자신의 간청을 듣고 흔쾌히 승낙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관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오직 공의로만 경영하신다면 소돔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멸망을 면할 수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 사랑을 가지고 소돔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엄위로운 의와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지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당신의 전지전능함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당신의 완전한 속성으로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친구로 동역자로 대하십니다.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